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영미문화 내용분석: 2011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Da-Young Ryu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와 같이 EFL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은 영어권의 문화적 요소를 습득하기 위해 교과서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에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과서가 각 과마다 문화 고정란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문화적 개념을 습득하는 데는 부족하다. 둘째, 정신문화, 물질문화, 그리고 행동문화의 세 가지의 유형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셋째,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화 소재별 분석 결과 예술, 문학 등의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가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넷째, 문화 배경별 분석을 해본 결과 보편문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영미문화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고르게 문화를 다루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문화와 영어권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과 한국문화의 소개 등도 좀 더 많이 다루어서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영미문화, 영어교과서, 문화교육, 문화소재, 문화유형

Abstract In a EFL situation, most Korean students and teachers are exclusively dependent on English textbooks to acquire the cultural factors of Englis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cultural elements in the English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ll of the textbooks contain the culture part at the end of each lesson, it is insufficient for students to build a cultural schema. Second, in the analysis of cultural types, three types of cultures are presented in a similar percentage. Third, the culture elem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11. The most dominant is the culture regarding arts and literature. Forth, in nationality analysis, universal culture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more efforts to improve students' knowledge of the American and English culture.

Key Words : Cultural contents,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English text book, Cultural education

Received 16 September 2013, Revised 10 Octo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Da-Young Ryu(Jungwon University)
Email: modestar99@j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국제적 언어로서의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만의 언어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언어가 되었으며,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 영어 능력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철자만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 정양수(2007)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의 바탕이 되는 문화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습 초기단계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문화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희숙(2011)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습득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문화교육 전후의 영어 흥미도를 연구하여 문화교육 후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게 나왔음을 입증하였다. 김정석(2008)은 문화체험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상당히 향상됨을 증명하였으며, 윤종용(2005)은 문화교육이 학생들의 듣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미문화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재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는 교과서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상황에서 영어교과서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영미문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2014학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15학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새로 바뀐 교과서가 학생들의 실제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분석이 된다. 특히, 언어와 문화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새로 바뀐 영어교과서가 문화적 소재를 어느 정도 다양하고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 보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사용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영어교과서 중 영어 I의 5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교정란을 살펴보고, Chastain(1976)과 Finocchiaro(1973)가 제시한 문화유형과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소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또한 영어권 문화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어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의 개념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도덕·종교·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다”라고 정의된다(p. 1507).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홍선미, 조순정(2010)은 문화가 인간의 행동을 안내해 주며 가족들의 생활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ulture is our continent, our collective identity. Blueprint that guides the behavior of people in a community and is incubated in family life. Culture is defined as the ideas, customs, skills, arts, and tools that characterize a given group of people in a given period of time. (p. 237)

즉, 문화란 일정기간 내에 한 집단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고, 관습, 기술, 예술, 도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Brown(2000)은 문화가 집단의 구성원과 구성원을 묶는 “접착제(glue)”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에 상호 공유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생각, 습관, 기술, 예술, 도구로 정의될 수 있으나 각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2.2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문화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언어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Brown(2000)은 다음과 같이 문화와 제 2언어 습득의 밀접한 관련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It is apparent that culture, as an ingrained set of behaviors and modes of perception, becomes highly important in the learning of a second language. A language is a part of culture and a culture is a part of a language; the two are intricately interwoven so that one cannot separate the two without losing the significance of either language or culture.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is also the acquisition of a second culture. (pp. 177-178)

즉,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 2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습득은 언어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습득과 더불어 문화적 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Rivers(1968)는 언어는 문화에 반영되어 있어 절대 분리될 수 없으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자료는 문화를 소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Stern(1992)은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상호관련성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의 동시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 사회 특유의 문화적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완벽한 문법에 의하여 말을 하더라도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의사소통 중에 화자와 청자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양수(2007)는 다음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정리하였다. (p. 206)

표에서 보듯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보통 'my'를 쓰는 상황에 'our'를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Our wife is at home.'과 같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인들은 부인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포기하고 영어권의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되도록 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 문화와 영어권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여 문화적 편견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S.

U.S. (Individual value orientation)	Korea (Group value orienta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Egalitarianism	Hierarchism
Confrontation	Indirectness
Pragmatism	Formalism
Rationalism	Emotionalism

2.3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문화소재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Rivers(1964)는 외국어 학습을 통해 지적능력과 교양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구두 또는 서신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Finocchiaro(1973)는 효율적인 문화학습의 주제는 학생 개개인이 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문화이해를 통해 선입견을 줄이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함과 동시에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개정안에서의 영어과 소개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가지 소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 p. 148)

- 1)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 6)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3. 교과서 분석

3.1 분석 대상 교과서 및 분석 기준

본 연구는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중에서 영어 I의 5종을 선정하여 문화내용을 분석하였다.

(Table 2) Analysis target texts (English I)

Publisher	Author	Total Number of Lesson
Kumsung	Kyung-Han Kim	8
Neungyule	Chan-Seung Lee	8
Doosan	Min-Woo Yoon	8
Visang	Min-Pyo Hong	8
Chunjae	Jin-Wan Kim	7 + Special Unit

개정된 교과서는 대부분 8개 단원으로 교과서가 이루어졌는데 친재교육의 경우에는 7개의 단원과 Special Unit를 추가하여 독해자료를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교과서의 분석 대상 단원 수는 총 40단원이 된다. 교과서는 각 단원 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읽기자료(본문)에 분석할 만한 문화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총 40개 단원의 읽기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교과서가 문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파트가 있으므로 문화고정란도 분석을 위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고정란이 어떤 문화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각 교과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Chastain(1976)과 Finocchiaro(1973)가 분류한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가 유형별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해본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19가지의 문화소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한국문화와 영어권 문화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가 소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문화와 문화들 간의 비교가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본다.

3.2 교과서 분석

3.2.1 문화 고정란 분석

문화 고정란은 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 항목을 강조하면서 새로 나타났다. 그 만큼 문화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각 교과서별 문화 고정란 소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 고정란의 문화내용은 주로 해당 단원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금성출판사는 'Aroun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각 단원의 마지막에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습관에 관한 여러 나

라의 속담과 rhyme이 드러나는 우리나라 시와 미국의 시를 소개하였으며, K-pop에 드러나는 rhyme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한국, 미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하였다. 4과에서는 동화 작가 이름과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동화 제목을 찾게 하고 있지만 동화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5과에서도 나라 이름과 유명한 장소의 이름, 사진을 가지고 어떤 곳인지 찾게 하는 활동이 있으나 그에 맞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의 전화번호가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짧은 글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요가, 스쿼시, 살사댄스를 언급했으며, 세계를 바꾼 유명한 발명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 보다는 각 나라의 간단한 설명을 주고 문제를 풀거나 빈 칸을 채우는 식으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 문화 소개에 관하여 자세히 학습을 하거나 문화적인 Schema를 형성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다.

	remember phone numbers		Store Ice in the Desert		a Painting
7	Natural stress reducers	The Most Attractive Places in Seoul	High School Students Speak to the World	Various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Money Around the World
8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Black Pepper Drew the Colorful Routes for Trade	Hot Items for Seniors!		

능력교육은 아예 'Culture'라는 제목으로 문화 소개를 위한 내용을 각 단원 마지막에 넣었다. Oliver Twist, Anne of Green Gables, The Catcher in the Rye와 같은 청소년들의 성장소설을 소개하였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터키, 스위스, 멕시코의 대표 음식과 인종차별과 관련된 영화 세 편을 사진과 함께 다루었으며, 미국 학교에서의 특별한 날에 대한 소개와 Steve Jobs, Pablo Picasso와 같은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의 6가지 문화 상징에 관한 설명과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에 관한 소개가 사진과 함께 다루어졌다. 각 문화 고정란은 한 페이지이지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나 활동이 없어 그러한 활동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동아는 'Read Culture'라는 문화 자료를 매 단원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독일 학교생활에 대한 소개, 새해에 행운을 주는 음식과 불운을 의미하는 음식의 나라별 설명, 고양이가 행운을 준다는 일본의 문화, Special Olympics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조명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고, 머리 색깔에 대한 미신과 역사, 고대 사막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토론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노인들을 위한 유용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각 단원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Click Culture 코너를 통해 ICT를 활용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문화 내용을 학습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화 설명의 독해가 다소 길어 학생들에게는 학습해야하는 독해가 늘어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Table 3〉 Culture Parts in each text

	Kumsung (Around the World)	Neungyule (Culture)	Doosan (Read Culture)	Visang (Inside the World)	Chunjae (Teen Links)
1	Proverbs about habit breaking	Experience Teen Culture	The Cone-Shaped Bag: At the Start of School Life	A Glance at Different Cultures Through Collections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2	Rhyming poems and lyrics	Designs for the Better	The Best and Worst New Year's Food		Amazing Facts About Trees
3	Wedding customs	Traditional Foods of the World	Cats Bring Good Fortune!	Birthday Foods Around the World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Korea
4	Famous fairy tales	Movies about Challenging Racial Discrimination	We're Just Different Types of Normal!		Unusual Inventions
5	Beautiful nature scenes	Special Days in American Schools	Hair's Colorful History	Appropriate Technology for World neighbors' Sake	Landmarks Around the World
6	Mnemonics to	Creative People	An Ancient Way to		Proverbs Hidden in

비상교육은 매 단원마다 문화소개를 하지 않고 2개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Inside the World'라는 내용으로 문화를 다루고 있다. 다른 교과서가 문화 고정란을 한 페이지에 소개하는 반면 비상교육은 2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 내용으로는 여러 학생들의 수집품에 대한 소개, 여러 나라의 생일 음식에 관한 설명, 세계의 이웃들을 위한 적절한 과학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인도의 대표적 공연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짧은 소개를 하였다. 각 문화 고정란은 하나의 문화 주제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적절한 사진과 함께 비교적 흥미롭게 다루고 있지만 2페이지를 할애한 것에 비해 어떤 한 가지 문화 소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천재교육은 'Teen Links'를 통해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화려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을 많이 넣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설명을 자세히 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문화를 학습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문화의 내용으로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나무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의 발명품, 세계의 유적지, 유럽의 속담, 그리고 세계의 화폐에 관한 것이다. 개인 또는 모둠별로 과제 수행을 통해 문화 내용을 습득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교과서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교과서가 문화 고정란을 만들어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점과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 교과서보다는 문화 내용면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2 문화 유형별 분석

문화 유형별 분석은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의 세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원의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문화 유형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문화 유형은 Chastain(1976)과 Finocchiaro(1973)이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안유진(2002), 전영희(2009)가 분류한 하위영역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Table 4〉 Cultural Types Analysis Criterion

Cultural Types	Subordinate Scope
Material Culture	Country, City, Cultural relics
	Food Material, Medicine, Clothes, House
	Jewelry, work of art, Stationery, Daily goods, Furniture, Bill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Nature, Environment, Landscape, Weather
Behavioral Culture	Daily life, Greeting, Introduction, Shopping, Showing the way
	Individual life, Habit, Diary, Letter, Phone call
	Home life, Family, Holiday, Birthday
	School life, School system, Class, Study, Discussion, Friendship, Club
	Social life, Career, Group, Personal relationship
	Leisure, Hobby, Sports, Traveling, Entertainment, Health
	Social system, Organization, Law, Command, Rule
Spiritual Culture	National character, Values, Ability to think, Public order, Cooperation, Patriotism, Democratic awareness
	Human race, Human rights, Minority, Gender equality
	Language, Proverb, Superstition, Advertisement
	Art, Music, Literature, Photograph, Movie, Religion
	Politics, Economy, History, Science, Education
Great man, Hero, Character	

위의 분석 기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분석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5〉 Cultural Types Analysis Result

Cultural Types	K	N	D	V	C	Total
Material Culture	2	4	3	2	2	13(32.5%)
Behavioral Culture	3	2	4	2	1	12(30.0%)
Spiritual Culture	3	2	1	4	5	15(37.5%)
Total	8	8	8	8	8	40(100%)

(G: Kumsung, N: Neungyule, D: Doosan, B: Visang, C: Chunjae)

표 5에서와 같이 5종 교과서 40개 단원에서 물질문화는 13단원(32.5%), 행동문화는 12단원(30.0%), 정신문화가 15단원(37.5%) 제시되었다. 행동문화 비율을 약간 낮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문화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금성출판사가 세 가지 문화를 가장 고르게 다루었고, 능률교육은 물질문화를, 두산동아는 행동문화를,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은 정신문화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문화로 금성교과서는 5과에서 날씨에 민감한 석회석에 관한 이야기, 8과에서는 볼펜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능률교육은 2과에서 디자인에 관한 글, 3과는 프랑스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두산동아의 경우는 2과의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 소개, 3과의 파리지옥이라는 풀에 관한 설명, 6과의 한국의 위대한 과학 유산을 소개하는 글이 물질문화로 분류되었다. 비상교육은 3과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 쿠키 소개를 하고, 6과에서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천재교육에서는 2과의 나무가 주는 혜택에 관한 글과 5과의 이집트를 여행하며 이집트를 소개하는 글이 물질문화에 해당된다.

둘째, 행동문화로는 금성교과서의 1과의 일기문, 6과의 압기를 잘하기 위한 학습전략, 그리고 7과의 불안의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설명한 글이 있고, 능률교육의 1과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내용의 글과 5과의 단어 철자 말하기 대회에 관한 이야기가 행동문화로 분류된다. 두산동아는 1과의 새로운 목표를 세운 학생의 블로그 게시글, 4과의 스페셜 올림픽의 역사와 선수의 이야기, 7과의 TV 시청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 내용, 마지막으로 8과의 활기차게 제 2의 인생을 즐기는 세 노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비상교육은 1과의 도서관 이용법에 관한 글과 2과의 수집광의 에피소드와 취미로서의 수집에 관한 글이 행동문화에 해당되고, 천재교육에서는 7과에서 현명한 소비에 관한 글이 이에 해당된다.

정신문화로는 금성교과서 2과의 rhyme에 관한 글, 3과의 서양과 동양의 관점의 차이, 그리고 4과의 문학작품이 있으며, 능률교육의 4과 소설작품, 6과의 이성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한 글이 있다. 두산동아는 5과에서 추리소설을 다루었고, 비상교육은 4과에서 케냐의 여성 환경 운동가의 이야기를, 5과에서 수학적 사고에 관한 글, 7과에서는 흑인 소년이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야기, 8과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진들의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재교육은 1과에서 나라별 인사말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였고,

3과에서 한국의 줄타기 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루었으며 4과의 물리학자 Richard Feynman에 관한 글, 6과의 고흐와 고갱의 이야기, Special Unit의 소설이 정신문화로 분류된다.

교과서별로 물질문화와 행동문화, 정신문화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다르지만, 각각의 문화 안에서는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대체로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3.2.3 문화 소재별 분석

2011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문화 소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가지 항목이다. 본문의 내용이 중복된 소재를 다루는 경우 포괄적인 내용을 중점을 두어 소재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Cultural Elements Analysis Result based on 7th National Curriculum

Cultural Element	K	N	D	V	C	합계
Individual life	2		1		1	4(10%)
Home life, Food, Clothing, House		1	1	1		3(7.5%)
School life, Friendship	1	2		1		4(10%)
Social life, Social relationship						0(0%)
Hobby, Travelling, Sports, Leisure			1	1	1	3(7.5%)
Animal, Plants, Weather, Natural phenomenon	1	1	1		1	4(10%)
Way of communicate in English speaking world						0(0%)
Daily life in various culture						0(0%)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1				1	2(5%)
Introducing Korean culture and daily life		1	1		1	3(7.5%)
Public order, Cooperation, Consideration, Service, Responsibility		1				1(2.5%)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1		1(2.5%)

Literature, Arts	2		1	1	1	5(12.5%)
Changing World			2			2(5%)
Individual Welfare						0(0%)
Democratic awareness, Global citizenship		2		1		3(7.5%)
Patriotism, Reunification, National security						0(0%)
Politics, Economy, Math, Sci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			1	1	3(7.5%)
Human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1	1	2(5%)
합계	8	8	8	8	8	40(100%)

(G: Kumsung, N: Neungyule, D: Doosan, B: Visang, C: Chunjae)

5종 교과서 40개의 단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재는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5개 단원(12.5%)이며,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이 각각 4개 단원씩(10%) 다루어졌다. 또한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각각 3개 단원씩(7.5%)을 차지했다.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이 각각 2개 단원씩(5%) 소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이 각각 1개 단원(2.5%) 제시되었다. 반면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

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술, 문학 등의 소재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영미 문학이나 예술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학작품이나 예술은 각 나라 특유의 문화적 배경과 교훈이 담겨 있다. 이러한 소재를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은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특이성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성출판사는 문학이나 광고, 노랫말에 쓰이는 rhyme에 관한 내용과 *The Image of the Lost Soul*이라는 문학작품이 소개되었고, 두산동아에서는 설록홍즈가 붉은 머리 연맹이 연루된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소설을 다루었으며, 비상교육은 역사적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진들을 통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와 그것에 담긴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고찰해보았다. 천재교육은 Special Unit에서 현대소설 한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으로는 금성출판사의 새 학기에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한 학생의 일기와 불안에 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룬 이야기, 두산동아의 개인 블로그, 천재교육의 현명한 소비에 관한 글이 있다.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의 소재로 금성출판사는 *Rehearse More, Remember Longer!*라는 제목으로 암기를 잘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하였고, 능력교육 교과서에는 친구들의 우정으로 인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학생의 이야기와 학교의 단어 철자대회에 참가한 두 학생의 이야기가 있다. 비상교육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의 첫 도서관 탐방기와 사서 선생님의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글을 다루었다.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소재는 주로 날씨와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금성출판사는 날씨에 민감한 석회석을 통해 날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였고, 능력교육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식물에 대한 글을 소개하였으며, 두산동아는 취미로 파리지옥을 기르게 된 학생이 파리지옥을 기르면서 관찰한 내용을 적은 관찰일지를 다루었다. 천재교육은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언급하였다.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소재는 가장 기본적인지만 다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이나 옷, 주거에 관한 소재는 없었고, 모두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능

를교육은 프랑스 요리에 관한 글이 제시되었고, 두산동아는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을, 비상교육은 최초의 쿠키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각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나라별 대표 쿠키에 관한 글을 다루었다. 앞으로 여러 나라의 가정생활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 및 사랑이나 이웃과의 생활 등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소재로 두산동아는 스페셜 올림픽의 역사와 참가 선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비상교육은 한 수집광의 에피소드를 통해 수집의 진정한 의미와 건전한 취미로 수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천재교육에서는 이집트 기행에 관한 기행문을 제시하였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행문의 경우 그 나라를 간접적으로 접해보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만큼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야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능률교육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와 작품에 대한 글을 다루었으며, 두산동아는 한국의 위대한 과학유산인 석빙고, 양북일구, 거북선, 직지에 관한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천재교육은 줄타기 명인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관한 관심이 한류로 인해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소재가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소재로 능률교육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와 평등과 인권에 관한 소설인 *The Helper*라는 소설을 다루었고, 비상교육은 *The Blind Side*라는 영화를 통해 소외된 흑인 소년인 진정한 가족애를 깨닫고 재능을 발전시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소재로는 주로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

다. 금성출판사는 *Story of the Biro*라는 제목으로 볼펜을 발명하게 된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비상교육은 간단한 수학적 사고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생물체가 어떻게 저마다 알맞은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으며, 천재교육은 Richard Feynman이라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의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또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소재이지만 단 2개의 교과서만이 이러한 소재를 다루었다. 금성출판사는 서양과 동양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고, 천재교육은 나라별 인사말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였다.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소재로 두산동아에서 학생들의 TV 시청에 관한 찬반 토론에 관한 글과 활기차게 제 2의 인생을 즐기는 세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비상교육에서 전 세계 인구의 90%를 위한 디자인으로서, 적정 기술의 개념과 그것의 발생 배경 및 추구하는 바, 그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천재교육은 고흐와 고갱의 삶과 작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으로는 능률교육의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한 소방관과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 있고,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의 소재로 비상교육에서 케냐의 여성 환경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Wangari Maathai의 생애와 그녀의 다양한 업적에 대한 글을 다루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소재는 19가지로 다양한데 비해, 교과서의 단원이 많이 줄어 보통 8개 단원이기 때문에 모든 소재를 고르게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교과서는 되도록 문화소재가 겹치지 않게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2.4 문화 배경별 분석

세계는 점차 하나의 큰 사회가 됨에 따라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여러 문화를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맞추어 영어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국의 문화나 영미문화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종족, 종교 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관용과 협동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여러 문화를 통합하고 비교하여 가르치는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과서에도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문화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두에게 공통적인 보편문화와 함께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는 교과서에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영어권과 비영어권의 문화, 비교문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Table 7> Cultural Background Analysis Result

Cultural Background	K	N	D	V	C	Total
Universal Culture	6	5	5	5	2	23(57.5%)
Korean Culture		1	1		1	3(7.5%)
English Culture	1	1	1	1	2	6(15%)
Non-English Culture		1		1	2	4(10%)
Comparative Culture	1		1	1	1	4(10%)
Total	8	8	8	8	8	40(100%)

(G: Kumsung, N: Neungyule, D: Doosan, B: Visang, C: Chunjae)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종 교과서 40개 단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편문화이다. 보편문화는 23개 단원(57.5%)이며, 전체 문화 내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권문화는 6개 단원(15%), 비영어권문화와 비교문화는 각각 4개 단원(10%)단원, 그리고 한국문화는 오직 3개의 교과서만이 각각 1단원을 다루 3개 단원(7.5%)이다.

보편문화는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보편적인 문화, 즉 개인의 심리, 목표, 학습, 학교생활, 취미, 소비 및 인생에 관한 내용과 자연, 과학기술,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권으로 분류하였다. 보편문화를 다룬 교과서의 단원은 다음과 같다.

<Table 8> Lesson dealt with Universal Culture

Kumsung	Neungyule	Doosan	Visang	Chunjae
L1 Three Weeks To a Better Me	L1 Discover Your Uniqueness	L1 Ready, Set, Go!	L1 Ready to Start School?	L2 Trees for Life

L2 Rhyme Around Us	L2 A Better Life for All	L3 Fine Me a Cool Hobby!	L2 Hobbies Bring You Joy	L7 Money Matters
L5 Wonders of Weathering	L5 My School Life	L4 Sports: More Than a Game	L5 Logical Thinking	
L6 Rehearse More, Remember Longer!	L6 Be Creative!	L7 One Topic, Two Voices	L6 Technology for a Better World	
L7 The Two Faces of Anxiety	L8 Nature's Gifts	L8 Live Young!	L8 Listen to the Picture	
L8 Story of the Biro				

보편문화의 내용은 개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금성출판사는 보편문화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개인의 생활목표, 학습, 불안과 관련된 내용과 자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8과의 *Story of the Biro*는 사실 Biro라는 헝가리 사람이 볼펜을 발명하게 된 내용의 이야기라서 비영어권 문화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Biro라는 인물 자체의 내용보다는 잉크를 넣어 쓰는 만년필을 사용하다가 볼펜으로 인해 사람들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편문화에 포함시켰다. 능률교육도 개인적인 심리와 학습에 관한 내용과 같은 개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이성적인 사고의 중요성,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과 식물에 관한 글이 포함되었다. 두산동아는 개인의 목표, 식물을 기르는 관찰일지, 스포츠 이야기, 학생들의 토론, 제 2인생을 즐기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보편문화로 분류되었다. 비상교육은 도서관 이용법에 관한 내용, 취미로 수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수학적 사고, 기술의 개념과 발생 배경, 영향력 있는 사진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천재교육은 2개의 단원만이 보편문화에 포함되었는데, 하나는 나무가 주는 혜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명한 소비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우리나라 작품을 소개 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3개의 교과서만이 한국문화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능률교육은 한국의 사진작가와 작품에 관한 내용을, 두산동아는 한국의 과학유산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천재교육은 줄타기 명인에 관

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영어권문화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 뿐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포함시켰다. 모든 교과서가 한 단원씩 영어권문화를 다루었다. 금성출판사와 능률교육, 두산동아는 영미 소설을 소개하였고, 비상교육은 미국 영화를 다루었다. 천재교육은 미국의 물리학자에 관한 글을 다루었고, Spical Unit로 미국 소설을 덧붙였다.

비영어권문화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문화를 포함시켰다. 3개의 교과서만이 비영어권문화를 포함시켰다. 능률교육은 프랑스 요리사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비상교육은 케냐의 여성 환경 운동가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글이 소개되었다. 천재교육은 2개의 단원이 비영어권 문화에 포함되었는데 이집트에 관한 기행문과 고흐와 고갱에 삶에 관한 글이 있다.

비교문화는 여러 문화를 동시에 비교, 설명하여 문화간의 차이를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능률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한 단원씩 비교문화를 다루었다. 금성출판사는 서양과 동양의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사진을 통해 알려주었고 두산동아는 여러 나라의 길거리 음식을 비교하여 소개하였으며, 비상교육은 각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나라별 대표 쿠키에 대해서 다루었다. 천재교육은 첫 번째 단원부터 비교문화를 다루었는데 나라별 인사말을 비교하며 인사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위의 결과로 새로 개정된 교과서들이 보편문화의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보편문화 소재도 필요하지만 타 교과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진 소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 교과서보다 문화적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영어교과서를 통해 목표언어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권문화의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야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편중되게 문화내용을 다루었다. 대학입시 위주의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문화교육에만 중점을 두어 영어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교과과정 안에서 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어교과서가 문화적 내용을 다양하고 고르게 다루어야한다.

4. 결론 및 제언

언어교육의 최종목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상호작용에 있다.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영미문화의 교육은 주로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교과서가 문화 소재를 어느 정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문화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새로 사용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중 영어 I의 5종 교과서가 문화적 소재를 얼마나 다양하게 고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문화고정란은 이전 교과서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었으나 개정교과서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문화고정란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Schema를 형성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문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유형별 분석에서는 총 40개 단원 중에서 물질문화 13단원(32.5%), 행동문화 12단원(30.0%), 정신문화 15단원(37.5%)으로 다루어졌다. 교과서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교과서들이 세 가지 유형의 문화소재를 비교적 고르게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문화 소재별 분석에서는 40개 단원 중 예술, 문학 등의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가 5개 단원(12.5%)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영어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소재로 선택되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다른 문화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이러한 소재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가 9가지이나 교과서 단원이 상대적으로 이전 교과서보다 줄었기 때문에 모든 소재를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재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담기 위해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배경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40개 단원 중에서 보편문화가 절반 이상인 23개 단원(57.5%), 영어권문화가 6개 단원(15%), 비영어권문화와 비교문화는 각

각 4단원(10%)의 반영률을 보였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는 단 3개 단원(7.5%)만이 다루었다. 따라서 보편문화의 소재 비율을 낮추고 영어권문화와 비영어권 문화의 소재를 좀 더 다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영어 교과서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사항이나 어휘를 정해놓고 단원을 구성하고, 본문 내용에 맞추어 문화 소재를 덧붙이는 식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 소재를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 소재를 우선 선별하여 본문 내용을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영어교과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영어권 문화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 교과목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보편문화에 대한 소재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보편문화에 대한 내용을 줄이고, 영어권 문화의 소재 확충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균형 있는 문화 내용을 위해 비영어권 문화와 한국문화, 영어권과 한국의 비교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담으려고 교과서가 노력을 했지만 교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도수(2006)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문화를 소홀히 다루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 결과 문화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36%), 문화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없어서(33%), 현행교과서에 다룰 문화내용이 별로 없어서(2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하나는 교사가 문화내용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영어교과서가 문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스스로 영어권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ang-Soo Jung, Understanding American Culture for English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Press, p. 206, 2007.
- [2] Hee-Sook Park, A Study of Effectiveness of Teaching Cultures in Primary School English.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2011.
- [3] Jung-Seok Kim, The Effects of Cultural Experiences in English Learning on Listening & Speaking Skills and Affective Domai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4] Jong-Woong Yun, Relation between Culture Education and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5.
- [5]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ig Korean Dictionary, The First Volume. Eomungak, p. 1507, 1991.
- [6] Sun-Mi Hong, Soon-Jung Cho, English Acquisition. Hankook Munhwasa, p. 237, 2010.
- [7] Brown,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ddison Wesley Longman, Inc, pp.177-178, 2000.
- [8] Sun-Joo Kim, You in Wonderland. J and C, 2012.
- [9]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10] Stern, H. H,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11] Finocchiaro, M. & Bonomo, M,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s. Regents Publishing Company Inc, 1973.
- [1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nglish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p. 148, 2011
- [13] Kyung-Han Kim, Jin-Kyung Lee, Shin-Hye Kim, Hoe-Joo Lee, Hye-Eun Cho, Joo-Hee Hong, Byeong-Soo Yoo, Seol Kim, Min-Jung Kim, Hyun-Jung Na, Wook Namgung, Les Timmermans, High School ENGLISH I. Kumsung Oybksugubg Co. Ltd., 2013.
- [14] Chan-Seung Lee, Hye-Young Kim, Jin-Ho Yoon,

- Joo-Yeon Lee, Ji-Hyun Kim, Hyun-Kyung Kim, High School ENGLISH I. Neungyule Education Inc., 2013.
- [15] Min-woo Yoon, Sun-Ho Park, Hee-Jung Im, Sun-Mi Chang, Young-Hak Shin, Ji-Young Shin, Tae Hee Lee, High School ENGLISH I. Doosan Dong-A Corporation, 2013.
- [16] Min-Pyo Hong, Hyun-Ki An, Jae-Il Yeom, Sang-Geun Lee, Jung-Tae Kim, Eun-Sung Park, Jae-Young Park, Hyung-Ji Chang, Young-Ran Song, Eun-Young Choe, Hung-Ok Chang, Soo-Won Jung, Jun-Soo Han, In-Young Song, High School ENGLISH I. Visang Education Inc., 2013.
- [17] Jin-Wan Kim, Byung-Kyu An, Jun-Il Oh, Bo-Ram Kim, Eun-Young Go, Kyung-Ja An, Jong-Mi Lee, Yoon-Hee Choe, Soo-Hyung Han, Jae-Hee Kim, Judy Yin, High School ENGLISH I. Chunjae Education Inc., 2013.
- [18] Chastain, K,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ies to Practice. Rand McNally, 1976.
- [19] Yoo-Jin An, An Analysis of English Culture in English Textbook based on the 7th Curriculum, Ma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2002.
- [20] Young-Hee Jun, An Analysis of Cultural Material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2(1), 109-126, 2009.
- [21] Do-Soo Lee, English Education Utilized Cultural materials. Intervision, 2006.

류 다 영 (Ryu, Da Young)



- 199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영어영문학사)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e-learning, 영미소설, 영미희곡

· E-Mail : modestar99@jwu.ac.kr